Email: tdskim@dk-law,ca Fax: (403) 266-2453 Bow Valley Square II

Suite 3300, 205 5th Ave S.W. Calgary, AB T2P 2V7

성실, 근면하게 모시겠습니다 LUSHMORE@GMAIL.COM c.403-809-1112/b.403-270-4060

OHIEF ALS ALBERTA JOURNAL

May 1 ~ May 7, 2020

Vol. 1062

이 베이징에 도착한 기차안

탈북자 출신 지 당선자 "北

"심혈관 수술 받다 심장 쇼

탈북자 출신 인권운동가

지성호 미래한국당 비례대

표 당선자 (사진 아래)는 1일

"김정은이 사망한 것으로 보

인다. 99% 확신한다"고 주장

지 당선자는 이날 본지 통

화에서 "북한 내부 소식통을

통해 확인한 결과 김정은이

지난 주말 사망한 것으로 알

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내부 소식통에 확인"

영어회화 레슨 대상: 초등 4학년~대학생 ㆍ 성인 학생 지도: 학과목 · Homework · Writing

캐나다 원어민

성인 Listening & Speaking 실력 향상에 초점 -교사 경력-

알버타 대학 영문과 / TESOL 자격증 한국 & 중국 영어교사 (초중고생 · 대학생 · 공립학교 교직원)

전화: (영어) 403-891-3162 / (한국어) 403-264-4426 이메일: esl2019canada@gmail.com

CALGARY Tel: (403) 616-7755 | 84 Christie Knoll Heights SW Calgary AB T3H 2V2 | Email: 회사대표 abjournal.ca@gmail.com, 광고디자인 albertajournal@gmail.com

20일째 사라진 김정은, 평양도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평양 외교관조차 "한국뉴 스 보고 원산 체류 추정"… 38 노스는 "전용열차 원산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북·중 간 무역 업자 등을 통해 북한 내부에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자 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 했다.

김정은의 부재 상황이 길 어지자 평양 등을 중심으로 이 같은 소문이 번지고 있다 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평 양 주재 외교관은 29일 김정 은의 신변 이상설에 대해 알 고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 뉴 스를 통해 원산에 있는 것으 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의 전 용 열차로 추정되는 열차가 29일에도 원산에서 포착됐다 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 노스가 밝혔다. 이 열차는 지 난 21일과 23일에도 위성사 진으로 두 차례 포착됐었다. 38노스는 "열차의 존재는 분 명하지만 실제로 이 열차가 김정은의 것인지, 도착 당시 김정은이 타고 있었는지 사진 만으로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태영호 미래 통합당 당선인은 27일 CNN 인터뷰에서 과거 북한 외교관 시절을 거론하며 북한이 수시 로 김정은 전용 열차를 다른 지역에 보낸다고 말했다. 김 정은의 동선을 위장하기 위 한 일종의 교란 작전이라는 것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1면 에 김 위원장이 지난 24일 러 시아 자유민주당 위원장 당수 블라디미르 지리놉스키로부 터 축전을 받았다고 보도했 다. 축전에는 김정은과 블라 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의 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한 축하 인사도 담겼다. 국책연 구소 관계자는 "외국 정상과 의 서신 교환을 통해 김정은 이 정상적으로 집무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이라 고 했다. 그러나 김정은의 건 재를 확인할 만한 공개 활동 보도는 없었다.

20일째 안보이는 김정은.. 북, 간단한 동정보도만

북한은 1일에도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 여전히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정은의 공개 활동 모 습은 지난달 11일 노동당 정 치국 회의를 주재하는 장면 이 다음날 북한 매체에 보도 된 것이 마지막이다. 이후로 20일째 김정은의 공개 활동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의 일 상적인 동정에 대한 보도만 이어가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김 정은 동지께서는 당과 혁명 앞에 지닌 시대적 사명감을 자각하고 힘 있는 선동 활동 과 이신작칙으로 대중을 당 정책 관철에로 고무 추동하고 있는 모범적인 선동원, 5호 담 당 선전원들에게 감사를 보내 시었다"고 했다.

5호 담당 선전원은 한 사람 이 주민 5가구씩을 맡아 사상 교양사업을 지도하는 사람들 을 뜻한다. 이 신문은 김정은 이 선전 · 선동 활동을 하는 이 들에게 감사·격려의 뜻을 보 낸 시점 등은 공개하지 않았

조선중앙통신도 전날 바샤 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크로 사망한 듯" "몇 년간은 김여정이 김정 은 아들 승계 과정에 섭정할 것"

이 28일 자로 김정은이 보냈

던 축하 전문에 대한 답전을

보냈다고 동정 보도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 령은 30일(현지시각) 김정은 의 건강 이상설 관련해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 알고 있지만 말할 수 없다"고만 했다. 우리 정부는 "특이 사항을 발견하 지 못했다"는 입장을 유지하 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에 서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관측

지성호 "김정은 지난 주말

을 했는데 수술 후 쇼크 상태 에서 사망한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그는 "1% 그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어 100% 사망했 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고 있다"며 "심혈관 쪽 수술

지 당선자는 "김일성·김정 일 사망 때를 비춰봐도 일주 일 지나 발표됐었다"며 "이르 면 이번 주말, 늦으면 다음 주 중 북한이 김정은 사망을 발 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 당선자는 김정은 후계 문제에 대해 "김정은의 자녀 중에 아들이 있는 것으로 안 다"며 "북한이 가부장적인 문 화라 여성인 김여정이 직접 통치권을 이어받기 보단 '유 훈 통치' '섭정' 식으로 통치 하고 김정은 아들에게 후계를 물려주는 구도로 갈 것"이라 고 했다. 그는 "김정은 친형인 김정철은 김여정을 돕거나 정 치에서 빠지지 않을까 싶다" 며 "김정은 숙부인 김평일은 북한을 너무 오래 비워둬서 북한 전권을 잡긴 어려울 것" 이라고 했다.

지 당선자는 "현재 북한 주 민들은 '김정은 이후로 바뀐 게 없다'며 불만이 가득한 상 황"이라며 "미·북 하노이 회 담에서도 달라진 게 없고 올 해가 경제개발5개년 마지막 해인데 경제도 나아진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은 현재 남한 언 론 보도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며 "내부 민심 불만이 폭 발해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도 나오고 있다.

사망.. 99% 확신" 주장





• 잔디관리 • 잔디공사 조경 · Deck공사 · Fence공사

Tel: (403)397-6308

A-WIN 최국병 종합보험 (AB,BC,SK 주)

최국병 Jason choi 직통 403 695 1050

자동차 한국보험 Full 인정집보험 최대 70% 할인사업체 최대 20% 할인

SANGAUTO 정비 엘체 / 데테엘 솜씨차 / 홈질제커

종교차 때때 인소팩션 / 부분 팬금 모색 403-397-3973 #604 3208 8ave NE Calgar



780 989 0505

Fax 844 251 9652

Certified Condominium Specialist MaxWell Southstar Realty

• 크고 작은 사업체 매매 ◆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매매

콘도, 타운하우스, 주택 매매

뉴 홈, 뉴 콘도, 뉴 타운하우스 Masters In Commercial Property iFax. 403-592-7525 ◆ 새로운 사업체 셋업 커머셜 리스 (Retail & Office)

각종 부동산 상담을 고객님의 편한 시간에 맞춰서 풀타임으로 도와드립니다.

알버타 골퍼들에게 희소식

케니 주지사,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골프장이 개장될 수도"

Golf courses are being allowed to open as early as this weekend, Kenney said, but clubhouses, pro shops, onsite shops and restaurants are still closed. The latter two types of businesses will be allowed to open in phase two.

알버타의 골프장 대부분이 빠르면 이번주말부터 개장될 예정이라고 케니 주지사가 발 표했다.

그러나 골프장내 클럽하우 스와 프로샵등은 영업재개 두 번째 단계에 이를 때 오픈할 수 있다고 전했다.

금주의 캘거리 한인 노인회 소식

캘거리 노인 회원 여러 분.

수그러 들지 않는 코로 나 바이러스에 시달리느 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 니까?

이틀 전 CTV 뉴스 시간 에 방송된 사회적 거리 2 미터를 지키지 않은 세사 람 모두가 일인당 1500 불 짜리 벌금 통지서를 받았 다는 소식은 알버타 보건 당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도 록 얼마나 많은 심혈을 기 우리고 있는가를 알아 볼 수 있는 증거라고 말들을

합니다. 오늘, 목요일에 또 발 표를 하겠다니 참 답답한 노 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며칠 후부터는 2미터 규정 을 선별적으로 완화시킬 수도 있다는 주 정부의 예고 소식 만 들어도 어깨가 펴지는 느 낌입니다.

캘거리 한인 여성회에서는 '곡식 나누어 주기 행사'를 마 련하여 봉사하고 있어 우리 동포들 특히 연로하신 분들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해마다 우리 동포들을 위해 건강 박람회 (헬스 페어) 를 제공하고 있는 비영리 단 체인 캘거리 한인 건강 증진 협회 (Calgary Korean Health

Advocacy Society) 는 건강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전문적 으로 일하고 있는 젊은 마음 들을 지닌 그룹으로, 현재 코 로나바이러스, COVID-19 로 인해 불편을 많이 겪고 계실 한인 노인분들을 위해 두 가 지의 방법, 1) 무료 장보기 서 비스, 2) 안부전화 드리기를 계획했다는 내용을 지난 주 알버타 저널에 소개한 바 있 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좋 은 봉사를 하시는 분들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캘거리 스탬피드 행사도 하지 않기로 했다는 뉴스는 모든 캘거리 시민들에게 많 은 아쉬움을 갖게하지만 시 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 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 이겠지요.

그럼 항상 건강에 유의하 시고 회원님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속히 만날 수 있기 를 손 모아 기도 합시다.

캘거리 한인 노인회 임원 일동

Calgary Korean Seniors Association